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왼쪽)와 박재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기부금 전달식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재영 동아일보 기자 base@donga.com

서울마라톤 러너들 '아름다운 이웃사랑'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굿잡 캠페인' 동참 기부금 전액 발달 장애 청년들 일자리 마련에

푸르메재단과 서울마라톤이 함께한 '오늘도 굿잡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이 5월 31일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20층 OC큐브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재균 동아일보 논설주간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오늘도 굿잡 캠페인'은 발달 장애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기부 문화 캠페인으로 대회 참가자의 자발적 기부로 이뤄진 뜻 깊은 행사다. '오늘도 굿잡' 러너로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푸르메재단에서 스넵백을 제공했다. 참가자 기부금 전액은 발달 장애 청년의 일자리인 푸르메 스마트팜 건립을 위해 쓰인다.

정영우 푸르메재단 마케팅 실장은 "대회를 준비하며 러너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놀랐다. 서울마라톤은 마라톤 참가자의 꿈을 이루는 세계적인 대회다. 오늘도 굿잡 캠페인을 통해 참가자와 함께 기부 문화의 씨앗을 만들 수 있어 감사한 대회였다. 내년 서울마라톤이 광화문에서 성대하게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영우 기자 jiyay@donga.com

FA 전준범, 현대모비스와 재계약 계약기간 5년·보수 1억5000만원에 사인



전준범

자유계약선수(FA) 미계약자로 남았던 전준범(30·194cm)이 원 소속구단 울산 현대모비스와 재계약했다.

KBL은 31일 2021년 FA 원 소속 구단 재협상을 마감했다. 9명의 FA 미계약자 중 전준범만 유일하게 계약에 성공했다. 전준범은 계약기간 5년, 보수총액 1억5000만 원(인센티브 3000만 원)에 현대모비스와 사인했다.

FA 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타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을 받지 못한 전준범이 나쁘지 않은 조건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연봉 등 보수를 떠나 5년의 장기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인지 추후 트레이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보상이 있는 FA인 전준범을 타 구단에서 데려가려면 일정 수준의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사인&트레이드가 아니면 전준범의 이적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본 이유이기도 하다. FA 시장 개장 직후 전준범을 사인&트레이드로 영입하려던 구단이 있다는 소문이 나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전준범 외의 FA 미계약자 8명 중 주지훈(창원 LG), 김정년, 이현(이상 인천 전자랜드) 등 3명은 은퇴를 결정했다. 성기빈, 이종구(이상 서울 삼성), 김우람, 정진욱(이상 부산 KT), 권혁준(현대모비스) 등 5명은 미계약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2021~2022시즌을 마치면 다시 FA 자격을 얻어 재도전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막내형' 이강인, 올림픽 영웅 새도전

2년전 U-20 월드컵때도 막내 에이스 김학범호서도 4살 터울 형들과 호흡 6월 2차례 평가전서 역할 점검 계획 김감독 "최적의 포지션 찾아보겠다"

이강인(20·발렌시아) 하면 생각나는 단어 중 하나가 '애국가'다. 2년 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는 국가 의례 때 유독 크게 애 국가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 입을 짹짹 벌리며 노래 부르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경기 전부터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어린 나이에 유럽무대에 도전한 그에게 애국가는 특별했을 법하다. 동료들에게도 동참을 부탁했다. 그러자 애국가는 찌렁찌렁 울렸다. 안방의 국민들도 따라 불렀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한국은 사상 최초의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강인은 골든볼(MVP)을 수상했다.

또 하나는 '막내형'이다. 당시 18세의 이강인은 두 살 많은 형들과 함께 했다. 막내였지만 팀의 에이스였다. 대표팀은 그를 중심으로 뽕뽕 뭉쳤고, '원 팀'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불은 애칭이 막내형이다.

애국가와 막내형은 이강인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준다. 또 그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월반의 아이콘' 이강인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한다. 이번에는 올림픽이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의 소집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파울루 벤투 감독의 A대표팀에 발탁되다가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올림픽대표팀에 처음 소집됐다. 김 감독은 "기존 멤버와의 조화를 비롯해 올림픽에 갔을 경우 장점 등을 두루 보겠다"고 밝혔다.

경쟁력을 시험해보는 단계지만, 이강

인의 기량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A대표팀 우선 원칙에 따라 양보했을 뿐이지, 김 감독은 늘 그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기량 확인보다는 역할에 대한 점검이 주안점이 될 것이다.

이강인은 이번에도 막내다.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연령제한은 24세 이하다. 따라서 형들과는 4년 터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유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또 유럽무대는 물론 국제대회 준우승의 경험은 큰 자산이다. 오세훈, 엄원상, 조영욱, 이지솔 등 U-20 대표팀에서 함께 한 동료들이 있어 적응에도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그는 이번 시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4경기 출전에 4도움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감독 교체, 부상, 부족한 출전기회 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대표팀은 클럽과 다르다. 그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 가장 어울리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수 있다. 김 감독이 "소속팀에서 측면에서도 뛰는 등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던데 최적의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보겠다"고 한 말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황의조의 황금 콤비를 탄생시키며 금메달을 따낸 김 감독이 이강인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작품을 구상 중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31일 제주도 서귀포의 한 호텔에 소집된 올림픽대표팀은 6월 가나와 2차례 평가전(12·15일)을 치른다. 이를 통해 이강인 프로젝트의 일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막내형' 이강인이 또 한번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 이강인은 2020도쿄올림픽에 나설 '김학범호'의 핵심으로 꼽힌다. 최대 4살 차이의 형들과 찰떡 호흡을 과시할 수 있는지 기대가 쏠린다. 스포츠동아DB



'번뜩임' 사라진 백승호, 올림픽 뛴 수 있을까?

K리그 데뷔후 6G동안 퍼포먼스 없어 부진 털고 최중엔트리 승선할지 의문



백승호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축구대표팀이 31일 제주에서 강화훈련을 시작했다. 한국 축구 사상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올림픽대표팀은 12일과 15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2차례 친선경기를 펼친다.

28명의 소집명단에 포함된 백승호(전북 현대)도 다른 동료들과 이날 제주 훈련캠프에 합류했다. 경쟁이 만만치 않다. 올림

픽 최중엔트리는 18명. 여기서 와일드카드 3장을 제외하면 15명으로 줄고, 골키퍼 2명을 빼면 필드플레이어는 13명이다. 거의 2대1의 경쟁률이다.

그런데 백승호의 모습은 지금껏 평범하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소년 팀이 스카우트할 만큼 빼어났던 10대 시절의 번뜩

임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름슈타트(독일 2부)를 거쳐 올해 초 전북 유니폼을 입으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전혀 없다.

전북은 한바탕 소란을 감수할 정도로 백승호의 실력을 높이 샀다. 유럽무대에서 나이에 비해 짧지 않은 경험을 쌓았고, 각급 연령별 대표팀을 오간 뒤 일찌감치 A매치에도 데뷔한 커리어를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백승호는 여전히 몸값표를 떼어 내지 못했다. 실전감각은 무뎠어도 유럽 시즌이 진행 중일 때 K리그에 안착했고, 팀에 녹아들 시간 또한 적잖이 주어졌음에도 확실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4월 1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홈경기

서 K리그에 데뷔한 백승호는 5월 29일 인천 원정경기까지 6경기를 소화했으나 뚜렷한 퍼포먼스가 없었다. 공격성도 약하고, 결정적 찬스를 열어주는 킬 패스도 적다. 공격 포인트 전무하다.

중앙 미드필더로 한정해도 올림픽대표팀에는 이강인(발렌시아CF), 이승모, 이수빈(이상 포항 스틸러스) 등 쟁쟁한 자원들이 차고 넘친다. 김 감독의 눈에 들려면 분발이 절실하다.

올림픽 출전이 어렵다면 부활도 장담할 수 없다. 자신만의 뚜렷한 강점과 컬러를 빠르게 되찾아야 "실력으로 가치를 증명하겠다"던 약속을 백승호는 지킬 수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10G 무승'에도 반전 의지 없는 '동네북' 서울

수원전 0-3 완패...순위로 11위 처참 심드렁한 여론속 전력보강 지지부진



박진섭 감독

K리그1(1부) FC서울이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서울은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1 2021' 19라운드 홈경기에서 0-3으로 완패했다. '압도당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린 최악의 경기력으로 일관한 서울은 라이벌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서서히 쌓인 '무승' 기록은 벌써 '10경기'를 찍었다. 정규리그에선 9경기 연속 무승(3무6패), 0-1로 패한 K리그2(2부) 서

울 이랜드FC와 FA컵 32강 '서울 더비'까지 포함하면 10경기 연속 무승이다.

순위로 처참하다. 4승3무8패, 승점 15로 11위다. 그 뒤에는 광주FC(승점 14)가 유일하다. 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주 자가격리를 하느라 4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은 다행스러운데, 현재의 경기력과 팀 상태를 고려하면 뚜렷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서울은 타 팀들에 비해 아주 여유로운 스케줄을 받았다. 서울,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에 서울 원정을 치렀던 성남FC가 리그에서 잠시 이탈한 동안 다른 팀들은 거의 매주 2~3경기씩 치르는 살인적 일정을 소화했다.

그런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떤 영문인지, 서울이 미뤄진 경기를 띄엄띄엄 치르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 다른 팀들이 이겨라 풀린 9일 뒤 치른 강원FC와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긴 데 이어 수원에는 참패를 당했다. 통상적 컨디션 회복 사이클을 고려하면 2~3일을 쉬고 다음 경기를 하는 것과 일주일 이상 휴식 후 경기를 치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서울이 부진해도 여론이 심드렁하다는 점이다. 축구인들 사이

에선 "(14년 만에 리그 7경기 연속 무승에 빠진) 전북 현대에 서울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씩씩한 이야기가 나온다. 워낙 오랫동안 하향세를 그려서인지 요즘 서울의 추락은 '지극히 당연한 상황'처럼 비쳐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은 뚜렷한 반전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기밀 구축인 전력보강도 실통지 않다. 보강이 시급한 외국인 공격수를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나이 어린 브라질 선수로 채운다는 루머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박진섭 서울 감독은 수원전 직후 "영입 후보군을 많이 좁혔다. 비자 절차 등을 감안해 결정이 빨라야 하는데 아직 안 됐다. 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확정된 것이 없다는 의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